

번역의 문화, 문화의 번역

2007.1.22. 대안공간루프

참석 황현산(사회), 윤지관, 임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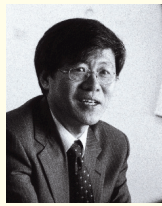
정리 강무성(본지 편집위원)

사진 박정훈



황현산(사회)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욤 아폴리네르를 중심으로 상징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걸친 프랑스 현대시를 공부했다. 아폴리네르에 대한 연구서인 《얼굴 없는 희망》과 《아폴리네르-알코올의 시 세계》, 한국 시에 대한 비평집 《말과 시간의 깊이》 등의 저서가 있으며,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 말라르메의 《시집》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지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영문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방문 펠로를 지냈다.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민족현실과 문화비평》·《리얼리즘의 옹호》·《낯선하늘 아래서》 등의 평론집을 출간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등의 소설과 《언어의 감옥》 등의 이론서를 번역했다.



임성모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일본 근현대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등의 공저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난민과 국민 사이》(이상 공역)와 《번역과 일본의 근대》·《전쟁의 기억》·《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내셔널리즘》·《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등의 역서가 있다.

황현산 우리 번역문화의 현재 혹은 문화번역의 현재를 짚어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번역이라는 주제는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갈래도 복잡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학술에서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있어서 번역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번역이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예술적 상상력이라든지 문화적 상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다음으로 번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번역과 주체의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대략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이들 주제에 대해 ‘정답’ 비슷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솔직한 의견들이라기보다는 의례적 답변에 속하는 그런 진술들이죠. 이를테면 ‘강단용’이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 차라리 두서 없는 솔직한 이야기들 속에서 유익한 생각들을 더 많이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지관 ‘교수티’를 내지 말자, 이렇게 들립니다. (웃음)

황현산 공교롭게 교수들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인원 구성이 좀더 폭넓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교수인 동시에 번역자로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학술 전반, 문화 전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번역을 통해 단지 텍스트가 우리말로 소개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 언어권 문화의 팩트와 내용과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반드시 따르게 되니까요. 그것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포함되지요. 결국 번역은 인문학의 핵심적인 주제와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번역의 위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나 학계와 문화계, 심지어는 번역가 자신에게도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번역된 근대와 지금, 우리

윤지관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번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여서 오히려 모두 손을 놓아버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번역이 우리 인문학에 본질적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디 인문학뿐이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모든 근대 학문의 형성이 번역을 통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번역된 학문’이라는 자의식이 한국의 학자들한테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나 운명일 수 있음에도,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독자의 인식 수준은 더 말할 게 없게 됐고요.

황현산 우리 근대 학문이 많은 부분 번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성모 제 경우에도 학문하는 동료들 중에 더러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번역은 그만두지 그러냐?'라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역에는 창의성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번역은 해석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창작 인데도 말입니다. 같이 학문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만큼 번역을 '허접한'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현산 임성모 선생께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일본의 번역, 특히 근대화 시기의 번역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일본에서는 번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성모 일본의 경우를 말하기 전에, 유럽에서 계몽사상 시기 이후 아시아에 대한 번역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하니까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작업은 이런 제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의 번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국공범'의 번역 작업이 그 예가 되겠죠. 국제법 체제에 진입하기 위해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했던 것이죠. 중국에서 번역된 만국공범을 일본식으로 읽고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집요하게 했던 배경에 그런 반제국의 논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제국의 번역으로 나아가

는 과정이 되고 말았죠.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런 번역작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 메이지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령 후쿠자와 유키치는 내무성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백과사전의 'Police' 항목을 번역하면서 경찰 제도의 기본틀을 만들게 됩니다. 1급 지식인들이 구체적인 번역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번역에 개입한다는 것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번역작업에 대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중시했다는 입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번역작업이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달랐던 거죠.

윤지관 임 선생께서 번역한 《번역과 일본의 근대》가 학계와 번역계의 관심을 끌었죠.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데는 번역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랄까 그런 관심과 지원이 기본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구적인 의미의 근대화는 문학이든 법제도든 서구를 번역함으로써 이루어진 '번역된 근대'의 속성을 갖습니다. 일본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먼저 개방을 했고 번역을 통해 그 쪽의 언어나 제도나 습속을 자기화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구와 접하긴 했지만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이웃을 거쳐서였고, 결국 일본이라는 번역된 서구를 번역하는 '이중번역'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런저런 특성과 왜곡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보편어는 보편 타당한가

황현산 우리 근대 학문의 수많은 용어들이 초기에는 일본어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표현법들도 그렇고요. 최근 일본식 한자나 표현을 배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식 한자어를 다 골라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서양의 경우를 봐도, 프랑스어 다르고 영어 다르고 독일어 다르지만 학술용어들은 대개 다 비슷하고, 그리스어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나 추상개념 어휘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양의 보편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축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용어들이 단지 일본사람들만의 문화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자문화권의 작품이죠. 그리고 한중일이 과연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같음으로써 한자문화권의 보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번역 문제와 약간 비껴 있는 여담이지만, 최근에는 세계화와 관련해 영어가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학문 자체를 자국어 아닌 영어로 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어랄까 보편어를 상징하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윤지관 보편어를 상징하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바벨탑의 신화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하나의 보편어가 있었는데 조각나서 소통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만, 실상 개별화한 언어를 통해 각 민족문화가 성취되었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민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토대로 문화나 삶이 형성되고, 창조와 성찰이 나옵니다. 보편어라는 것이 꿈으로 가져볼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실현되기는 힘듭니다. 지금 영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교류나 기본적 생활 의사소통의 도구로 써는 몰라도 각 민족어를 토대로 형성되고 축적되는 문화와 삶과 창조와 성찰의 다양성과 깊이를 다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임성모 요즘 '동아시아'가 자주 거론됩니다. 학술대회도 그런 테마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아시아의 법과 제도'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서 말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언어로 얘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국어로 해서 통역을 거치면 시간도 걸리고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하자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갖는 위치가 언어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라기보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수직적인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보편어로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설픈 영어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결국 통역을 거치는 것만 못하게 되니까요.

이에 반해 '아리안 프로젝트'였던가요?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연합 각국의 문화적 자산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각국의 민족문화로부터 최근의 텍스트까지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다른 언어로 소개하는 것을 유럽 문화통합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나 프랑스어 등의 지배적인 언어, 혹은 보편어로 가지는 발상이 아니고, 각국의 민족문화와 언어를 살려 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것이 번역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회의 자체도 통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통번역 예산도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아리안 프로젝트의 예산규모만 약 천만 유로입니다.

여기에 비춰 본다면, 지금 영어로 단일화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지성의 본산인 대학에서 이런 일을 나서서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영어의 중요성이 한국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고 대학까지 동조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현산 저는 고려대 영어강의 논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흔히 강의를 영어로 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선 교수가 훌륭한 영어를 쓸 수 있는가, 또 영어로만 강의해서 학생들에게 학술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모든 학문이 영어로 이뤄지면 한국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처럼 한국말을 '언문'의 위치로 격하해 일상어, 생활의 소통어 정도로만 쓰자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학문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자국어에 학술적, 과학적 깊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어를 풍부하고 깊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학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번역은 중요합니다. 가령 영어로 'democracy'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에 미치

는 영향도 크죠. 영어로 된 작품을 영어로 바로 읽을 때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 선생님?

윤지관 외국문학을 하다 보면 번역으로 읽는 것이 무슨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실력이 딸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원서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다만, 역시 원어로 읽을 때와 번역으로 읽을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선 언어의 특성이나 통사 방식이 다른 데서 오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의 경우는 외국성이 낮설게 다가옵니다. 한편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자기정합성을 미흡하지만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원서를 보는 감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된 것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번역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 집니다. 원서를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한 번역서를 읽을 때는, 원저의 내용이나 수준이나 인식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서의 대다수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잘 번역된 책의 경우 한국인이 한국어로 읽는다는 면에서 원서를 읽는 것과는 다른, 훨씬 독특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할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 그동안 재미없는 이문서만 번역해오다가 최근 처음으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두어 편 번역해서 내놓으면서 실감한 바 있습니다. ‘고전적인 외국작품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제인 오스틴이 도달한 자기 시대의 언어적 성취를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작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적 언어 수용과 중역

황현산 임성모 선생은 일본어 번역을 주로 하셨지만, 서양 언어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와 형질상 가장 가까운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독특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임성모 제 이름으로 번역한 건 1997년부터지만 실제로는 80년대부터 이미 번역을 해왔습니다. 80년대 사회과학서들의 대부분이 자기 이름을 감춘 대학원생들의 번역작품이었죠. 그 사회과학

서들을 지금 보면 웃음이 납니다. 정말, 번역이 아닌 거죠. 그 가운데 제 작품도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영어, 유럽어, 중국어는 자동번역기로 돌리면 정확성이 낮는데 일본어는 90%에 육박하는 말을 하더군요. 한국어 낱말과 일본어 낱말이 거의 1대1 대응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일본어 번역은 쉽다고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번역료도 일본어가 가장 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어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낯설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미묘한 뉘앙스까지 살려낼 수 있는 번역은 깊이 알아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저는 제대로 된 번역가라기보다는 번역의 혜택을 보는 독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책을 직접 못 읽기 때문에 일본어나 우리말 번역서, 영역된 책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책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번역서의 미덕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있습니다.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확하고 왜곡된 번역서라고 하더라도, 물론 읽다가 집어 던지고 싶은 책도 있겠지만, 부족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단초로 제 생각을 전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까 윤 선생께서 ‘번역된 근대’를 언급하셨지만, 제가 번역한《번역과 일본의 근대》의 역자후기에 한국의 근대는 ‘3중 번역된 근대’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미로부터의 직수입 번역,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오는 번역, 이렇게 번역의 루트가 세 가

지였다는 게 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핵심에 있었습니다. 일본어가 한역(漢譯)을 수입합니다. 이미 17세기경부터 유럽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현지인들과 공동작업한 역어들이 있었고 이를 에도시대에 받아들였는데, 중국에서는 소멸한 그 역어들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일본이 근대 초기에 합니다. 온전히 일본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개념어들이죠. 유럽어를 번역해서 일본어로 만들고, 중국어 역어를 자기 것으로 만든 일본어를 통해 한국의 근대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니다.

한국사회에서 일본어는 계속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명에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각하느냐 못하느냐, 어디까지를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복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민족성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80년대에 나카에 초민이라고 하는, 메이지 정부에 반대했던 자유민권운동 사상가가 루소의《사회계약론》을 번역하면서, 한자 텍스트로 번역합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말합니다. 그건 독자를 동아시아인들로 상정한 거죠. 중국과 조선의 독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일국주의 틀을 벗어난 사상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의 고전문헌에는 사실 지금의 보편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어다, 중국어다 하면서 국가의 틀로 가둔다면 우리 또한 일국주의 사고

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합니다. 일본어를 버리는 것이 한국적 근대를 살리는 작업은 아니고, 오히려 찌든 때처럼 배어 있는 것을 자각하면서 근대의 기원을 추적해나가고 거기서 어떤 과거의 연관성들을 살리는 작업이 훨씬 더 건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지관 임 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일본적인 것 혹은 일본어로 번역된 서구를 배격한다는 차원으로 과거를 다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별해가면서 우리 근대의 기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에게 없었다가 근대에 개발된 학문적 용어와 개념들의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에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70, 80년대 그토록 부르짖었던 ‘자유’라는 말만 해도 일본에서 메이지 때 번역되어 나온 것 아닌가요? 많은 부분에서 기본을 이루는 개념들이 일본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다 견어낼 수 있겠습니까? 선별이 이뤄져야지요. 긍정적인 것은 일본이 서구를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혹은 아시아적인 개념을 갖는 번역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을 정복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의 지극히 일본적인 상황에서 해낸 번역도 많이 있고, 이런 것 역시 번역에 묻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서구를 우리가 직접, 일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번역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통해서 우리 언어가 개발되고 개척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국주의나 민족주의는 경계하더라도 주체



황현산

자국어의 풍부하고 깊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학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적인 번역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수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성모 일본에서는 최근 서양의 학술용어들을 그냥 가타카나로 풀어쓰는 예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번역할 수 없는 걸 무리하게 번역해서 나타나는 폐해보다는 원어를 드러내는 방식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일본의 근대 초기 지식인들이 왜 그것을 한자어로 바꾸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이 주체, 주체적 언어 수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런 작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일본학자들이 그런 점에서 무너지고 비주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맥락의 얘기지만, 번역의 주체성과 관련해서는 중역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리지널의 우위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역이 상당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리지널을 보지만, 일본어역이나 중국어역을 참조하는 것이죠. 오리지널과 한국어 번역과의 1대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판단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중역이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건 프랑스어를 번역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번역한 걸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어와 한국어와의 관계 때

문에, 단어와 통사 방식이 낫설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어역이 더 좋고 공들인 거라면, 왜 굳이 오리지널 번역만 높이 평가하고 중역은 낮게 평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현산 좀 다른 예도 있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서구의 언어에서 번역한 이론서는 쉽게 읽히지만 일본어에서 번역된 것, 중역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론을 우리말로 옮겼을 경우 오히려 서구 언어에서 번역했을 때보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서양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대개 직접적 의미를 파악하고 뉘앙스를 분석적으로 이해한 다음 우리의 정서로 변안해내는 데 비해 일본어 번역을 할 때는 일본어 뉘앙스까지 그대로 옮겨오려 하거나 일본어의 뉘앙스와 한국어의 뉘앙스를 혼동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말답지 않고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말로 번역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윤지관 일본어 중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온 번역의 참조 차원에서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는 등의 합당한 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제시대에는 외국 문학작품을 거의 중역으로 읽었고,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본에서 번역된 세계문학을 다시 우리가 번역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국내 번역작품의 수준을 상당한 규모로 점검하는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중역된 번역작품이 더 잘 읽히고, 새롭게 번역했다는 작품이 오히려 과거의 중

역된 작품에 비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좋은 일본어역이 있으면 중역할 때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 작품을 직접 번역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중역하던 시절에는 그만큼 번역 능력을 갖춘 번역가들이 없었던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 일본어가 편하게 느껴지는 세대의 산물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번역에 관심을 갖고 언어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원어에서 직접 번역함으로써, 중역으로 생겨난 문제들, 그러니까 일본어투의 문장과 용어 같은 것이 그대로 우리 언어에 스미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더 직접적으로 다른 언어와 대결해가면서 우리 언어화하는 가운데 우리 학문이나 문학의 번역이 그 자리를 찾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의 충실성과 우리 풍토

황현산 우리 언어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불경이 한역(漢譯)되면서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오역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자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게 오해된 채로 전승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는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된 원시 경전을 다시 읽고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불경이 한문으로 번

역될 때 한문에 새로 생성된 이 개념들이 한문을 쓰는 사람들의 내면 의식과 만나 그 나름대로 새로운 발전을 해서 한자문화권의 불교라는 새로운 생각의 한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관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역이든 뭐든 간에 새로운 하나의 생각이 움트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자료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윤 선생께서 충실한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번역에서의 충실성 그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번역을 평가할 때는 충실성, 가독성, 대상 텍스트의 가치, 즉 번역할 만한 책인가 등의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충실성과 가독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충실성에 대한 문제를 번역의 중요성과 함께 결부시켜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 선생께서 영문학 명작들의 번역 작품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신 경험을 좀 소개해주시죠.

윤지관 사실 임 선생 말씀 중에, 번역한다고 하면 뭔가 '허섭한'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번역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번역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따지는 건 더욱 더 허섭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슬프게도 그 허섭한 일에 대한 허섭한 일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웃음)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오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본격적인 작업을 해 2004년에 결과물을 내고, 2005년에 창비에서 책으로 연구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영미 고전이 그 동안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

며 학교에서도 읽히고 대중한테도 인기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 수준에 대해서는 딱 엄띠엄 얘기해왔을 뿐 한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대학 영문학과에서 《테스》를 가르치면 당연히 학생들은 원서로 읽을 것을 요구받죠. 그런데 어디서 다 번역본을 구해옵니다. 번역본이 여러 중, 때로는 수십 중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을 봐야 할지 학생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일일이 대조해보기 전에는 추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강단에서도 그런 평가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36편의 고전을 추리고 해방 이후 2003년까지 출간된 모든 번역본을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복 번역이나 표절된 것도 포함됐는데, 다 합치면 1,000권 정도, 역자 단위로 보면 600권 정도 되는 것을 일일이 대조, 검토해서 평점을 매겼습니다. 여러 모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번역한 선배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봤습니다.

결과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충실성과 가독성을 상당히 많이 살려 원작을 대체해 읽을 만한 번역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10%밖에 안 됐습니다. 셰익스피어 등은 전문가가 해서 나왔지만, 《테스》나 《허클베리핀》 등 널리 읽히는 소설작품만 따졌을 때 전체 6%정도만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추천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별로 제대로 된 것이 한 권씩이나마 있으면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

니다. 유명 소설의 경우 한 편 정도 있는 게 전체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한 편도 없었습니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가 《무기여 잘 있거라》 같은 작품은 30여 종으로 번역돼 나왔지만,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그 중 한 편도 추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번역의 질이 낮았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번역문화나 풍토나 현실이 걸어서는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었던 거죠.

임성모 혹시 검토하신 것 중에서 같은 번역자가 몇 년 만에 다시 번역한 작품은 없었나요?

윤지관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처음 했던 것을 계속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했고, 처음 번역이 일본어 번역에서 중역된 것을 다른 분들이 계속 표절해가면서, 다른 출판사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검토한 것 중 60%가 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기도 중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하여간 몇몇 분은 자기 번역을 수정해나갔는데, 그런 분들은 대개 원래의 번역도 잘 돼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번역풍토가 열악한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다시 말해 일본어를 모르는 세대가 번역에 가담하면서 좋은 번역들이 나오는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모국어의 새로운 발견, 외국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황현산 읽을 만한 번역서가 6% 미만이라는 통계를 들으니 참 비참합니다. 판별의 기준으로 충실성과 가독성을 꼽으셨다고 했는데, 이 둘은 사실 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번역자가 어떤 태도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번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역을 할 것인가 의역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때로는 원전에 목표를 둘 것인가 소통에 목표를 둘 것인가 등으로 변신하면서 줄기차게 과제로 떠오릅니다. 가장 해묵은 문제면서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윤지관 황 선생께서 최근에 번역비평학회를 창립하신 것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번역비평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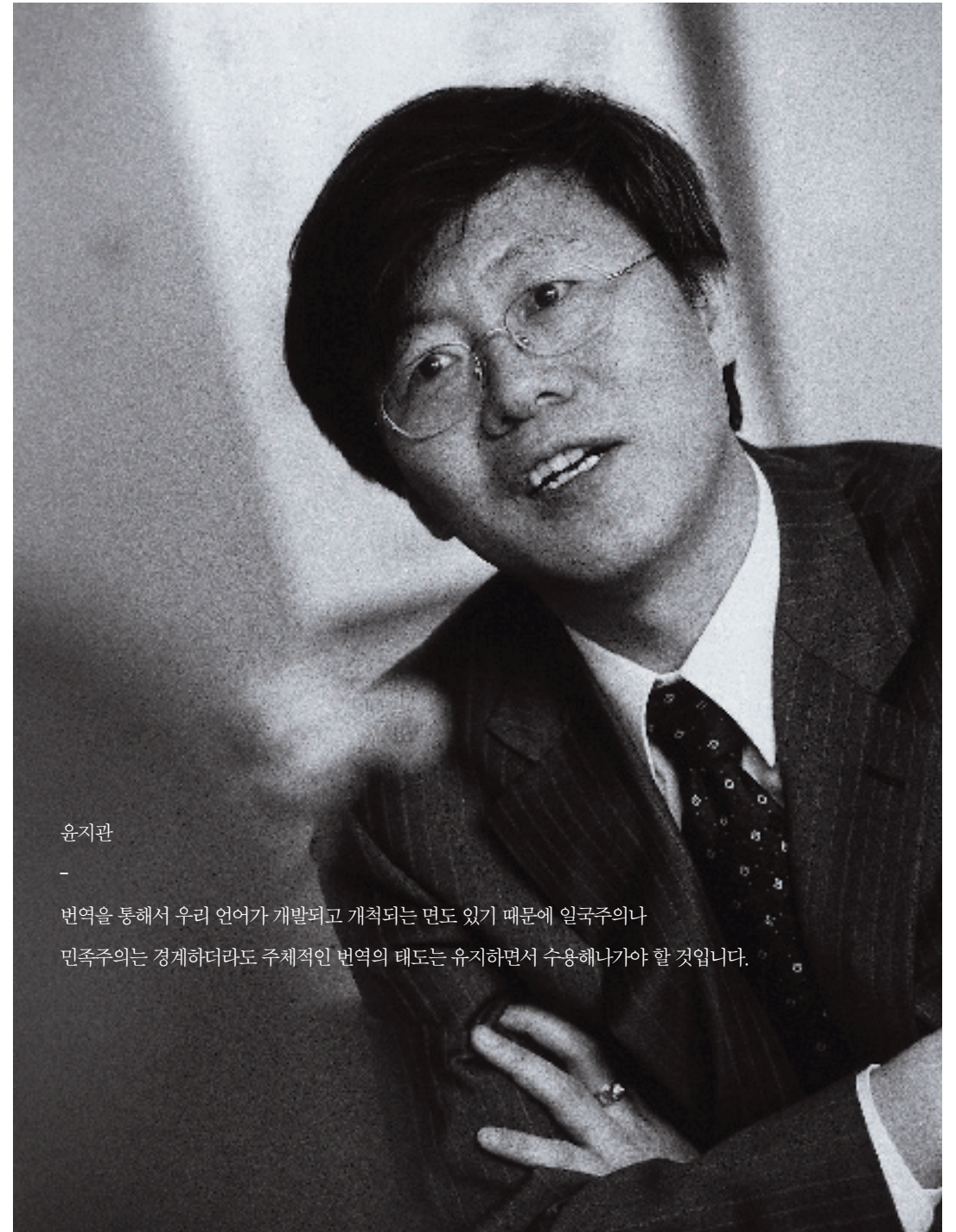
앞서 말씀드린 작업은 영미문학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소장 영문학자 40여 명이 모여서 했는데요, 그때의 평가 기준으로 물론 충실성과 가독성이 가장 큰 범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했던 작업은 비평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번역의 1차적인 수준만 본 거죠. 크고 작은 오역이라든가, 원의를 제대로 못 살렸거나 불성실하게 엉터리로 했거나 이런 것을 변별하는 차원에서 충실성과 가독성을 따진 것이죠. 예컨대 세 페이지에 심각한 오역이 하나 나오는 정도는 추천 범위 안에 넣었습니다. 한 페이지당 심각한 오역이 하나 이상 나오면 추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엉터리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섯 등급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황 선생께서 제안하신 번역비평은 그렇게 추천된 책들을 대상으로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번역서들의 질은 번역비평이라는 이름을 들이대기도 부끄러운 형편이었습니다.

황현산 임 선생께서 번역가로서의 태도를 경험과 이론을 합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성모 제가 번역하는 방식은 어느 전문번역가의 그것과 좀 다릅니다. 출판사에서 제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제안을 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예도 많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책이 있어서 읽으며 요점정리를 하다가 어느 문단은 아예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완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와 교섭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뉘앙스를 살려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번역은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작업입니다. 절대시간을 잡아먹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을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논문은 건너뛰면 그만이지만, 번역은 막히는 순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컨베이어벨트 전체가 멈춰 버립니다. 그러면 저자한테 물어봐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나마 저자가 살아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저자와 얘기하다 보면 의외의 창조적인 논의들도 나옵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든지,



윤지관

번역을 통해서 우리 언어가 개발되고 개척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국주의나 민족주의는 경계하더라도 주체적인 번역의 태도는 유지하면서 수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당신 책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고 하면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단지. 그런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더 재미있습니다. 필자랑 이메일로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묶어내면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때도 있죠. 결국은 역자가 원 텍스트를 둘러싼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한 이해를 하는가가 좋은 번역의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감감이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공도 들여야 합니다. 가독성도 있어야죠. 충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주위에서 가끔 역주를 그렇게까지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들을 합니다. 학술 번역에서는 역주가 많을수록 충실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역주가 많으면 사실상 가독성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판단해 찬찬하고 다른 문헌들을 뒤져가면서 나름대로 한 페이지 가까이 역주를 붙여놨는데, 독자입장에서 보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논지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뭘 그렇게 길게 썼느냐고 할 수도 있거든요.

황현산 제 경우에는 오랫동안 직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고, 실제로 거의 늘 직역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원문중심주의'입니다. 저는 번역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고 만들어낸 표현에 비하면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생각

들을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감당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족한 언어로 적당히 구겨 넣으려고 하다 보면, 늘 우리가 정말로 번역해야 할 부분을 번역 못하게 됩니다. 최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언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확장까지 시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말에 새로운 개념을 표현해 담을 길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독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선 그 글이 매끄럽게 읽히느냐 안 읽히느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 자체를 얼마나 가독성 있는 언어로 빚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지관 개인적으로 좋은 번역은 하나라고 봅니다. 의역으로 지칭하던 직역으로 지칭하든, 그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한다면 그 둘의 이상적인 조합이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모국어의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외국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 선생처럼 번역할 작품을 자기가 선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주석을 달며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번역자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은 '허접한 일'이라는 평을 받는 만큼이나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어만 어느 정도 알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번역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외국의 소개할 만한 작품을 연구자나 전공자가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는 출판사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번역의 대상이 선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후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당 이뤄져야 할 번역은 배제되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이 대거 소개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요즘 한류를 따라 우리 문학이 일본에 많이 나갔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일본문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양이 훨씬 더 엄청나서 외국문학 번역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일본문학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나 피상성에 우리 독자가 상당히 매혹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출판사나 번역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일본문학이 대거 소개되고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번역을 둘러싸고 고민할 지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번역,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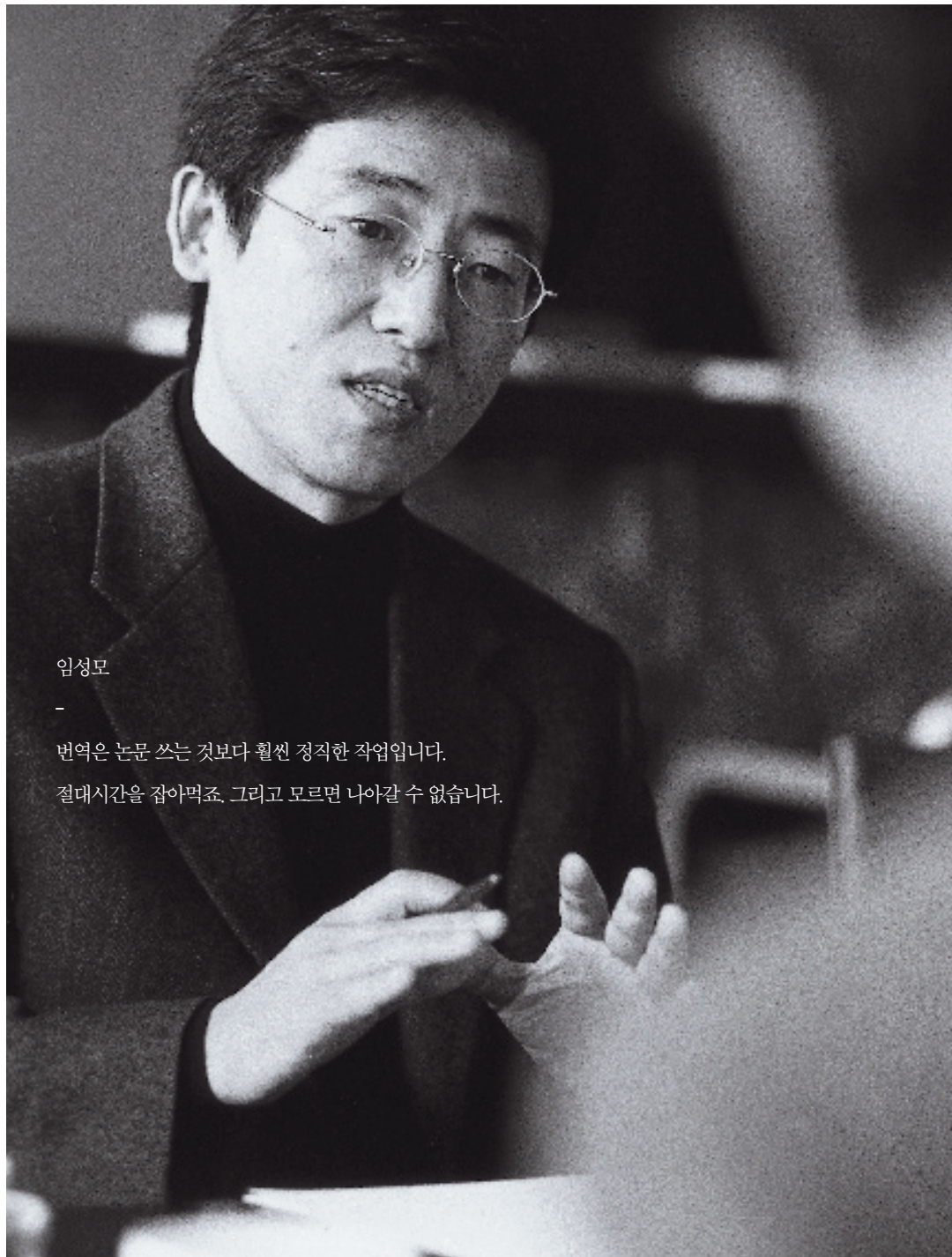
황현산 우리가 무엇을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일본 문학작품의 대량 유입을 이야기했지만 실은 《해리포터》처럼 우리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구의 대중소설도 많습니다. 같은 대중소설이 번역돼도, 서구의 것이 번역될 때는 염려의 관심에서 비껴나지만, 일본의 것이 소개되면 어김없이 비판이 뒤따릅니

다. 서구 대중소설이 유행하면 하나의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대중소설이 번역될 때에는 하나의 왜곡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번역해야 할 것인가, 번역의 주체성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진단이 정확할지는 자신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혹은 제3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성모 일본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두 명의 무라카미가 한국의 소설 시장을 휩쓸고 있죠.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대학생들이 그들의 소설 한 권씩은 대개 읽어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유행이나 패션으로 일본문학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소설보다 영향력이 더 큰 건 만화일 겁니다. 일본만화에 대해 한국 사회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가학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유독 일본 만화만의 것은 아닌데 일본만화 하면 그런 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20세기 소년》이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처럼 수준 높은 에콜로지를 담고 있는 만화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편적인 사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들까지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만화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지죠.

황현산 일본만화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집 여자들이 일본만화를 한아름씩 갖고 와서 보기 때문에 가끔 옆에서 어깨 너머로 들여다 봅니다. 우선 만화에 나오는 축적된 지식의 양에 놀랍니



임성모

번역은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작업입니다.
 절대시간을 잡아먹죠. 그리고 모르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 어떤 만화는 프랑스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어떤 만화엔 시인 아폴리네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더군요. 제가 명색이 아폴리네르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축적된 지식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것들을 일본 대중문학들이 굉장히 잘 쓰고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만화가 더 분류고, 일본소설들이 만화를 참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상실의 시대)》이라는 작품의 경우, 저같이 서양문학을 한 사람들은 작품을 읽으면 금방 세 작가를 골라냅니다. 피츠제럴드, 토마스 만, 네르발. 그런데 어쩌면 그 셋을 그렇게 잘 용해시키고 활용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냈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장이머우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문학이 만들어 놓은 미학들의 결과들을 저렇게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들도 넓게 보면 번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윤지관 중국이나 일본의 만화나 소설이라서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변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반성적으로나 비평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서양을 버무리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을 잘 해내는 사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편 생각하면, 번역에서 불가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서양을 잘 조합해내는 기술 차원에서의 번역에 한정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하루키 등이 서양에 잘 먹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에게 익숙하게 버무려냈다는 점인데, 말하자면 일본색을 드러내되 서양 구미에 맞게끔 번역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역의 바람직한 방향이겠는가, 이 점은 짚어봐야 합니다.

황현산 일본 사람들 스스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임성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각기동대>가 <매트릭스>에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는 항상 서양으로부터 뭘 받아왔는데 자기들이 할리우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자부심 같은 것은 일본 오타쿠 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각기동대>를 보고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갖고 있는 스토리 라인도 전혀 다르잖아요. 철학적인 것은 <매트릭스>가 더 뛰어나죠. 일종의 문화번역이 이뤄지면서, 서로의 장점들을 얼마나 갖고 오고, 자기 장점으로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일본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을 기준으로 삼고 사고와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다는 거죠. 그로 인해 서양과의 관계에서는 생산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지 몰라도, 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닦아가

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윤지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하자, 말은 하기 쉽습니다만, 과연 그 ‘주체적’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쉽지 않죠.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도 필요한데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부분을 번역할 것인가는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일본이나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들에서 형성된 문화에 대해 우리가 번역을 통해 좀더 알아보고 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화라고 하면 미국 중심, 서양 중심, 혹은 서양화가 빨리 된 일본 등으로 연상이 이어집니다만, 그런 세계 체제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전통적 생활문화와 언어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문학의 구성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의 번역도 그런 세계로 좀더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황현산 우리 문화에서 서구편향성이 지적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주체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서구에 대한 편향 자체가 주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강한, 지배적인 문화와 이념의 틀과 자기를 동일시하려는 시도 아닐까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성과 논리로써 자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주체성을 보편적 주체성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서구 편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바로 그 힘이 결국은 보수 우

익 민족주의로 이끌기도 합니다.

한편 서양문학작품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비난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서구 편향이라든지, 서구 원문만을 너무 정본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비난이죠.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바로 그것을 뿌리부터 번역하려고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내 주체성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내 주체성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구에도 겉으로 보이는 서구가 있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심층의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의 심층을 건드리려면 더 충실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기 쉬운 서구, 명확하고 보편적인 것으로만 보이는 서구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서구, 괴물로서의 서구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지관 아까 말씀하신 직역 이야기와 통하는 것 같군요. 제가 아까 좋은 번역은 하나라고 했지만,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서양의 고전적 작품에 대해서는 저도 ‘충실하게’가 번역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의 핵심, 그 사회의 근저에까지 도달하려면 그 언어를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설령 그 외국투가 많아 남아 좀 어색하고 가독성의 문제를 야기할지언정 충실하게 옮겨야만 그것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얻거나 서구의 요소들을 제대로 통찰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너무 자연스럽게만 하기보다 번역투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장르에서는 문학의 창조적인 성취보다 정확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좀더 잘 읽히는 방식의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역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미국말로 잘 읽히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제3세계 작품을 번역할 때 어색한 건 될 수 있으면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화시켜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신비화시켜서, 이를테면 아랍의 현실을 번역할 때 구체적인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좀 신비적으로 처리해 번역해버리는 성향이 있다는 비판을 하는 미국 번역학자도 있습니다.

임성모 번역이 지나치게 서구나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아시아를 이야기하더라도 동아시아 위주로 얘기됩니다. 동남아시아 등은 관심권에서 멀리 있습니다. ‘아세안+3’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죠. 한국의 인식 속에서는 ‘3+아세안’이죠. 아시아의 다른 권역의 역사나 문학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손으로 꼽아야 할 형편입니다. 너무 불균형적입니다. 아시아, 우리 주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한국 사회 스스로 강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번역도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거든요. 우리 스스로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로 제한하는 데는 앞서간 일본이나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우리를 동일시하려는 욕구가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시선이 없습니다. 70, 80년대에 아랍문학이 소개될 때는 그래도 긍정

적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때만 못합니다. 소수에 대한 시선이 번역 텍스트를 선정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역의 주체성을 이야기하자면 번역의 방향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번역의 방향이 일방향적입니다. 물론 번역되어 가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갖고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와 쌍방향적 번역

황현산 최근에 장이머우 감독의 <천리주단기>를 봤습니다. 관운장이 조조한테 몸붙이고 있다가 유비한테 복귀하는 상황을 다루는 경극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일본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PD였던 아들이 <천리주단기> 공연 장면을 찍으려고 했으나 못 찍고 병들어 죽어가요. 아버지가 병문안을 가도 아들이 만나주지 않을 만큼 부자간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해하는 방법으로 아들 대신 그 장면을 찍으러 중국으로 갑니다. 결국 아들이 죽은 다음에 찍어 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늙은 아버지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도 있고, 거기서 소통이 안 되는 아들과의 관계도 나오고, 경극의 주연 배우와 그 아들의 관계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국 밑에 또 다른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본 밑에 또 다른 일본이 있습니다. 번역이나 소통은 결국 타자를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이느냐, 타자



를 어떻게 이해하고 안고 ‘환대’하는가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결국 나도 내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타자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지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타자를 받아들이는 데 꼭 환대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경계할 수도 있겠지요. 타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고 있는 일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번역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 선생께서 아까 얘기하신, 쌍방향적인 번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상대는 우리한테 타자지만, 우리가 또 상대방에게는 타자거든요. 우리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가도 번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타자를 우

리 속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미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여러 모로 발전도 해왔습니다. 전반적인 번역 문화라고 해도 좋을, 학문이라고 해도 좋을, 아주 깊은 사회적인 의미까지 띠게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도달한 성취가 타자 속으로 번역된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면, 기본적으로 번역이 역시 강자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서구에 번역된 것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달한 언어적 혹은 문화적 성취를 번역해내는 일도 좀더 큰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화에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황현산 강자의 논리라고 할 때 그 강자는 주체, 혹은 우

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주체 아니겠습니까? 타자는 강자 아래에 있고, 강자들에 의해 가려져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언어와 상식에 충격을 주고 그것을 거스르는 번역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윤 선생께서 한국문학번역원장으로서 큰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서양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서양말로 번역할 때에는 늘 그 쪽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문제도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대개 한국 사람이 번역하고 외국 사람이 운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방식이 번역의 가장 나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하게 되면 서툰 외국어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 속에는 한국말에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을 담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 파트너가 이걸 전부 다스려서 운문하면 상투적인 표현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을 진부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술술 읽히기는 하되, 왜 한국은 상투적인 언어밖에 못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번역이 의미 있는 기능을 하고, 우리 문학작품이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하

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수용되도록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적어도 거기에서 충격을 주도록 번역해야 옳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번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어로 작품을 쓰는 이회성 선생이 한 수필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어를 직역한 일본어로, 가령 일본에 없는 한국 욕도 한국말 그대로를 일본어로 옮겨놓으니 새로운 표현이 얻어지더라는 겁니다.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현재 27개 언어로 번역을 해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서구어뿐 아니라 아시아권, 남미권까지 다양한 언어가 포함됩니다.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은 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번역자와 외국인 번역자가 파트너가 되어서 번역하는 시스템입니다. 황 선생께서 우려하는 그런 폐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 언어 기준으로 문맥을 자연스럽게 만드느냐 아니면 오히려 외국적 이질성까지 드러내느냐의 선택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의 성취를 살리는 데 있겠지요. 외국인으로서 우리말의 성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가 있다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외국인 번역자와 한국인 번역자가 짝을 이뤄 소통해나가면서 협업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작품을 자기 언어로 번역할 만한 수준 있는 외국인 번역자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깊고 전공자도 많고 그런 역사도 오래 됐습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일본은

서구를 번역해 들여오면서 근대를 형성해나간 그런 문제의식을 패전 이후에는 일본문화를 외국으로 번역해 내보내는 노력들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문학의 세계화 수준이 높아져 1968년에 이미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번역의 성과였죠. 우리 경우에는 그런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우리 것을 외국으로 내보내 상호 소통하는 쪽의 진행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관심이 좀더 제고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의 성립이 그런 인식의 진전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번역비평과 번역이론

황현산 우리에게 번역론, 번역에 대한 이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최근 10년 사이 번역이론에 치중한 것 같던데요.

임성모 말씀하신 대로 최근 10여 년 간의 일입니다. 15년 전에 이와나미쇼텐에서 《일본근대사상대계》라는 자료집이 나왔죠. 마루야마 마사오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 시리즈 중에 《번역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국공법’을 중국어 일본어 원어를 대조하며 논합니다. 국제법 텍스트가 중국어로 번역될 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군주 중심으로 해석했는데, 그때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하는 식이죠. 물론 이전의 문학자 중에 번역어의 성립을 연구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가령 ‘연애’라든가 ‘자유’라든

가 하는 개념어에 대해 독보적으로 연구한 한두 사람이 있지만 번역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격적인 번역론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번역의 사상》입니다.

황현산 현장의 번역가로서 이론가들한테 요구하는 번역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 번역론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윤지관 왜 소용없는 걸 자꾸 요구하시나요? (웃음)

황현산 번역이론이 번역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지침 구실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성모 요즘 ‘문화번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번역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확장되는 등 번역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번역 일반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주제가 못 되는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실제적인 지적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번역의 실제와 번역 일반론 사이의 매개가 되는 것이 저는 용어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용어에 통일이 없다는 게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일본 근대에서 놀라웠던 것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철학자휘(哲學字彙)》라는 책이 메이지 연간에 나와 네 번에 걸쳐서 개정 거듭합니다. 철학 용어집인데, 말이 철학이지 서양 사상의 주요 개념어들을 만들어가는 일종의 비평사전입니다. 그런 것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를테면 ‘race’의 번역이 1판에서 4판까지 다른데 지금의 ‘인종’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쪽 드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용어집이 나온 것도 워낙 다양한 역어들이 나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방증하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현재의 역어보다 더 나은 역어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어 집들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지침 혹은 중요한 참고가 될 매개죠.

윤지관 일본에서는 번역론이 용어나 개념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관행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데 소홀했습니다. 번역자들이 용어를 우리말화해서 번역할 때 일본 것을 끌어다 쓰는 경우와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 경우가 중첩되어 있는데, 일본어에서 번역할 때 서구어에서 번역할 때가 다른 것 같습니다. 비평용어에서도 데리다의 ‘deconstruction’ 개념을 ‘해체’로 번역한 것은 사실 일본이었죠. 용어의 번역 속에는 해석까지 담기기 때문에 용어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해석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데리다가 한 일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deconstruction’의 번역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번역된 용어는 그 언어 틀 속에서 의미를 따로 갖는다’ 요지의 말을 하더군요. 한 언어에서 번역이 갖는 의미 구성능력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일본학계가 상당히 선구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마루야마 마사오의 저작도 그렇고?

임성모 저는 일본이 그렇게 선구적이라고까지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번역론이 본격적인 화두가 된 것을 보면 우리와 시차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

윤지관 그렇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앞서 간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우에는 그런 번역사나 번역이론에 해당하는 작업을 뚜렷하게 해낸 것이 아직 없고 앞으로 해야 할 일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 영미문학연구회에서 했던 작업은 사실 우리 번역사를 정리할 때의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 그 수준을 하나하나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오역이 많다는 점에만 주목한 경향이 있지만, 그런 학문적 의미를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한국 번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황현산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하면서도 이론이 생산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우리 번역의 원죄라고 할까요, 일본 번역과의 관계와 함께 ‘오역의 뒷’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역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오역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역 얘기하다가 끝나 버리게 됩니다.

윤지관 요즘 재미있는 현상의 하나로 오역을 도리어 찬미하는 이론적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번역은 오역’이라며 오역의 의미와 창조성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하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영역과 만나는 번역학이 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산 번역‘론’으로까지 가기 전에 번역비평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번역비평을 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

학적·철학적·문화적 난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리적 난점도 있습니다. 어디에든 발표를 해야 하는데, 번역비평은 출판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악평으로 흐르기 십상인데, 출판사란 바로 그런 번역서를 내는 곳 아닙니까? 이런 물리적인 난점은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곳에서 해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윤지관 제가 한국문학번역원장의 자격으로 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죠? (웃음)

황현산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중립성은 확보하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유통되고 인정되는 번역을 위하여

윤지관 번역비평의 출판 문제도 그렇지만, 번역 전반의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인 의제로 여기는 풍토를 만드는 데 한국문학번역원이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국가지원 기관만의 일은 아니고 실은 번역계나 학계가 주도가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역방향의 소통이 거의 없었는데 이를 방지하면 간극이 더욱 커진다는 인식에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우리 문학문화의 해외번역도 진작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우선 번역계 내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해지고 인식이 제고되는 가운데, 거기에 아마 황 선생의 번역비평학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만, 번역가가 실질적으로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문학번역원도 기여해야죠.

임성모 좀 전에 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적인 위치의 매개체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정부여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은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근대 번역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용어를 통일하는 등 효율성에선 도움이 된 한편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았던 용어가 오히려 사라져 버린 것도 국가의 개입에 따른 부작용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번역론을 얘기하기 전에 지식인들 상호 간에 번역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번역의 수준이 올라가고 신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서로 인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좋은 번역본이 나와 있음에도 자기 글을 쓸 때에는 여전히 원전을 다시 인용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원전 페이지를 오히려 괄호 속에 넣고 자국어로 번역된 걸 앞세웁니다. 우리의 경우 번역본의 인용이 전면에 나오는 건 고사하고 괄호 속에도 못 들어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통된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외국의 텍스트로 남는 것입니다. 학문공동체가, 굳이 학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번역의 성과를 서로 인정하고 대접해주는 자



제가 필요합니다.

윤지관 번역만이 아니라 학문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국내학자가 쓴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반면 누구나 언급해서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을 외국의 어느 누가 하면 그대로 인용해야 무엇인가가 입증되는 것처럼 여기는 비주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학자가 어떻게 우리 사이에 번역되어 왔는가를 잘 파악하고 글을 쓰는 것은 이 땅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의 본분이 아닌가 합니다.

번역가도 마찬가지죠. 이미 축적된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계승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번역이나 학문을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황현산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번역이 우리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우리 번역문화에 원죄처럼 작용하고 있는 일본의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 유입만 일방향적으로 비대해져 온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 유입과 진출 양면에서 지나치게 지배적 언어 중심으로 번역이 이뤄져 온 '강자의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 번역작업의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이를 학문적, 이론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번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또 다른 대화의 과제로 넘겨야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